

새누리 집단퇴장...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

정 의장 ‘우병우·사드’ 발언 반발 의장 해임결의안·윤리위 제소 野 “보이콧이 집권여당 태도냐”

20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최했으나 첫날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을 문제 삼아 의사일정을 거부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으며 20대 국회 개원 맞이 국회의원 전체 기념촬영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진 채로 진행됐다. 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오우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연기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짐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 한 허물도 대신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우병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복합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어 곧바로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 제출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정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정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당리당략을 택했다”면서 “국회를 대표해야



향의하는 정진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정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의장이 좌파 시민단체나 할 법한 주장을 개회사에 담는 여차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퇴촉구 결의안과 별도로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직후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이 국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게 집권여당의 태도냐”며 “우 수석을 지키는 것이 추경안 통과, 대법관 인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최고의 개회사를 했다”며 거들었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나, 집권여당은 책임을 지고 국정과 국회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며 “자기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퇴장하고 추경 통과를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지직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첫날부터 기싸움을 벌이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의회 구도에서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여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수석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대야(對野)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사드 배치 논란, 건국절 법제화 등 화약성 짙은 쟁점이 많아 협치 국회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김재수 농림 후보, 우병우의 대표적 실패 인사”

청문회서 부동산 특혜 등 맹공 이후 청문회 야당 단독 진행

야권은 1일 잇달아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우병우 민정수석이 담당한 인사검증의 대표적 인 ‘실패 케이스’로 지목,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들

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교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가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하고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앞섰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 공직을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며 부당한 축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협은행의 전역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의료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차례로 언급,

“우 수석의 검증은 거쳐 지목된 후보자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 인사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우 수석의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검증에서 패스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우 수석을 그렇게 구하고 싶다면 김재수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고,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임명이 강행되면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열렸다. 오전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채 진행됐으나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오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부담 수급 의혹이 집중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희정·김부겸 “대선 출마”

야권 잠룡들, 잇단 대권 행보 천정배 전남 동부권 민심 탐방

야권의 잠룡들이 잇달아 대권 도전을 시사,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대중·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근현대사 100여년의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땀을 흘리고 있겠다”며 스스로 거론해오던 ‘불펜투수론’을 접고 직접 링 위에 올라온 셈이다.

안 지사의 대권 도전은 8·27 전당대회 이후 예고됐던 야권 대선국면의 조기 진입이라는 의미 외에도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이란 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 뿌리로 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경쟁자’로 바뀌게 됐다는 점에서 친노 진영의 분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지사는 2일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교육청에서 특강을 한 뒤 사회 전반적 문제를 공부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의

친노 지도부 독점 구도로 정치적 부담이 컸던 더민주주는 김부겸 의원에 이어 안희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기류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대세론이 형성되면 당의 생명력은 죽는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한 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댈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안 지사의 잇달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의 역동성 창출과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 주변에서는 전대 이후, ‘이대문’(이대로 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뜻)과 ‘문주당’(문재인이 주인인 당이 받는 뜻)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을 보고 싶다”며 사실상의 대선 출마 의사를 나타냈으며, 천정배 전 대표도 다음 주 중에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 전 대표는 지난 주 전남 서부권 민심 투어를 나선데 이어 다음 주에는 전남 동부권을 순회한다. 천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에 앞서 지역 민심을 듣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도 2일 광주를 방문, 자신의 정계 복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안희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기류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야당의 생명은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대세론이 형성되면 당의 생명력은 죽는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한 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댈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안 지사의 잇달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의 역동성 창출과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 주변에서는 전대 이후, ‘이대문’(이대로 가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뜻)과 ‘문주당’(문재인이 주인인 당이 받는 뜻)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을 보고 싶다”며 사실상의 대선 출마 의사를 나타냈으며, 천정배 전 대표도 다음 주 중에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 전 대표는 지난 주 전남 서부권 민심 투어를 나선데 이어 다음 주에는 전남 동부권을 순회한다. 천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에 앞서 지역 민심을 듣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도 2일 광주를 방문, 자신의 정계 복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임할 듯

당 대표 출마 수순 관측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박지원(사진) 의원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 후보비 파동으로 갑작스럽게 떠맡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직에 집중하며 정기국회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를 대비해 열린 의원워크숍 마무리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원총회와 비대위원회의를 통과하면 로드맵을 제시할 것”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의원의 결직에 따른 독주와 권력집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후보비파동으로 휘청거린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신생 정당의 틀을 갖추는 가바른 추경안 협상 등에서 원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당 내외에서는 박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당 대표 도전에 전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항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는 연말보다는 연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원워크숍에서 “지역의원장이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당원이 20만 명으로 늘어나 호남 비중이 50%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10만명 수준인 당원이 2배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해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